

도시 근교 소아에서 7년간의 체질량지수 변화 추이

이승훈, 황정숙, 박혜순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소아 및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의 예측뿐 아니라 이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근교 한 중소도시 소아의 체질량지수를 7년동안 후향적으로 관찰하여 소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체질량지수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과거 신체검사결과를 통하여 체중과 신장에 대한 자료를 얻어 소아기(7세)에서 청소년기(14세)에 이르기까지의 체질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. 체질량지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생활습관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시행하여 분석하였다.

결과: 7세에서 14세까지 체질량지수는 매년 평균 0.62 kg/m^2 증가하였다. 1998년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과체중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도 13세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 더 뚜렷하였다. 소아기 때 과체중인 경우 남학생에서는 84%가 여학생에서는 47%가 청소년기 과체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7세 때 과체중이었던 학생들은 7세 때 과체중이 아니었던 학생들에 비해 14세 때 과체중을 나타낼 상대위험도가 남학생의 경우 5.7 (95% 신뢰구간: 4.1~8.1) 여학생의 경우 6.3 (95% 신뢰구간: 3.4~11.4)이었다. 14세 때 과체중군에 속한 학생과 정상체중군에 속한 학생을 두 군으로 하여 부모의 체질량지수, 활동 정도, 식사 습관을 비교하였을 때 어머니의 체질량지수가 과체중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: 소아기 때 과체중인 경우 약 70%가 청소년기 과체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소아기 때 과체중인 경우 과체중이 아닌 군에 비해 청소년기 과체중이 될 위험이 높아 소아기 때부터 비만의 위험이 높은 경우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중심단어: 체질량지수, 변화추이, 소아기, 청소년기